

*. 이 글은 초고이므로, 인용을 원하는 분은 사전에 필자의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학의 관점에서 본 인지과학: 인지정치학의 가능성 모색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

들어가면서

이 글의 주제는 ‘정치학적 관점에서 본 인지과학’이다. 이 주제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정치과정과 인간 (및 동물과 인공지능체)의 인지과정의 관계에 관련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사회의 정치과정이 인간의 인지과정에 미치는 영향 및 인간의 인지적 행위가 사회의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이란 참으로 막대하다. 이 점은 예를 들어 분단이후 60여년이 지난 오늘날 남북한의 주민이 사유방식과 행동양식 등에서 (분단 이전의 오랜 공동의 역사적 체험 등으로 아직도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무엇보다 남북한에 성립된 국가체제의 차이로 인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 점에서 분단체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남북한 주민이 이전에는 하나의 민족에 속했지만 결국 ‘두 개의 민족’으로 나뉘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현재의 유럽연합체제가 앞으로 더욱 더 소속 국가들과 주민들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공고화되어 간다면, 현재는 독일민족, 프랑스민족 등으로 구분되는 유럽 주민들이 ‘유럽인’이라는 새로운 민족으로 통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넓은 의미의 사회과정과 인지과정의 관계를 탐구의 대상으로 하는 ‘인지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인지정치학’ 역시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인지정치학이 어떤 이론적 토대 위에 서야 하고, 무엇을 연구대상으로 해야 하는 가 등을 규명해 보는 하나의 작은 시도이다.

1. 인지과학의 이론적 토대에 관련되는 문제들

(1)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은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무엇보다 “인지현상의 구명을 중심 주제로 삼는 인간의 마음에 관한 과학”이다. 그런데 마음에 관한 연구는 당연히 마음과 두뇌의 관계, 마음과 신경망체계의 관계, 마음과 신체의 관계, 인간의 인지적 행위와 환경의 관계 등에 관한 연구를 포괄할 수밖에 없다. 거기서 더 나아가 인지과학의 연구는 동물의 마음, 날로 그 인지적 역능이 높아지고 있는 인공적 지능체인 컴퓨터와 기타 환경 속의 인공물의 인지적 능력 및 인간의 마음과 이들 인공물 사이의 정보적 관계 등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인지과학의 중심적-일차적 연구대상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마음이다. “인지현상의 해명을 중심으로 삼는 인간의 마음에 관한 과학”인 인지과학이 지닌 기본적인 의의는 어디에 있을까?

이 점은 예를 들어 ‘자극-반응-강화’ 학습모델에 따라 인간의 심리를 연구한 행동주의 심리학이나, 체계(system)가 작동하는 방식을 ‘투입(input)-산출(output)-되먹임(feedback) 모형’에 따라 설명하는 조야한 체계이론¹⁾이 지닌 문제점과 한계와 관련시켜 보면 잘 드러난다. 이 모형에서는 자극과 반응 또는 투입과 산출 (및 피드백)은 있지만, 내-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이나 정보 중 특정의 것을 받아들이고 배제하거나 특정의 방식으로 수용하는, 즉 수용의 ‘편향성’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수용된 자극이나 정보를 특정 방식으로 처리해서 특정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구조나 체계 자체가 지닌 내적 구조가 ‘블랙박스’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마음의 과학인 인지과학 역시 일차적으로는 그간 ‘블랙박스’로 처리되거나 제대로 해명되지 못한 ‘마음 자체의 복잡한 내적 메커니즘 (및 그 메커니즘이 신경망과 다른 신체부위들과 맺고 있는 관계 등)’을 해명하기 위한 과학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그런데 마음의 과학이 지닌 이런 측면 및 그에 따른 이론 구성은 사실은 블랙박스로 처리하고 있는 체계이론이나 다윈주의적 정치이론 등이 지닌 맹점의 교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마음 현상은 몸 현상 속에서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몸 현상에 의존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몸이 없다면 마음도 없다. 스피노자의 말을 따른다면, 마음은 ‘몸의 관념’인 것이다.²⁾ 그런데 마음 현상이 몸 현상에 기초하고 궁극적으로 몸 현상에 의존하는 현상이라 할지라도, 마음이란 몸의 물질적 과정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현상, 즉 몸의 물질적 과정으로 환원 불가능한 새로운 ‘떠오름(emergence)’ 현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 마음에 대한 연구는 마음 현상이라는 새로운 떠오름 현상을 만들어내는 몸의 물질적 과정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구명해 낼 수 있는, 몸과의 관계에서 본 마음에 관한 합당한 ‘전일적’(holistic) 연구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와는 달리 예를 들어 ‘분자생물학’ 및 ‘뇌과학’이나 ‘신경과학’ 등은 마음 현상의 물질적 토대 등을 밝히는 데에 기여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진척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이긴 하지만, 마음 현상 그 자체에 대한 연구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런 전일적 연구방법들이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강호성 2009, 173), 물질현상이 만들어 낸 생명현상과 더불어 생명현상이 만들어 낸 또 다른 복잡계 현상인 마음 현상에 대한 적절한 전일적 연구방법들의 개발은 생물학과 심리학은 물론 인지과학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속류적인 생물학적 유물론의 관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의 몸으로의 환원론’의 거부가 하위수준으로 환원되지 않는 상위수준의 ‘절대적’ 독자성 인정으로 이해되어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은 데카르트 등이 옹호한 ‘몸-마음 이원론’이나 ‘감성-이성의 이원론’ 등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데카르트의 관점은 ‘몸에 대한 마음의 우위’, ‘감성에 대한 이성의 우위’를 주장하는 ‘마음-몸 및 이성-감성 이원론’의 성격을 지닌다. 내가 보기에 몸과 마음의 관계는 이성과 감성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통일성 속의 차이’(difference in unity)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런 관점은 마음 현상이란 몸 현상의 일부로서 궁극적으로 몸에 의존하지만, 그러므로 몸과 마음은 서로 자율적인 체계들이

1) 정치학이론에서 이런 유의 대표적인 체계이론은 David Easton의 정치체계이론이다. 이에 대해서는 David Easton(1957; 1965) 등 참조. 미국 정치학의 주류적 견해를 대변하는 다윈주의 정치이론 역시 이런 모델에 입각한 정치이론 중의 하나이다.
 2) 뇌과학 내지 신경과학의 입장에서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스피노자의 견해가 지닌 의의를 논하고 있는 저서로서는 안토니오 다마지오(2007) 참조.

맺는 ‘외적’ 연관성이 아니라 ‘내적 연관성’을 맺지만, 마음 현상이 몸 현상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지니고 운동하는 현상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³⁾ 이런 입장은 ‘몸-마음 병행론’을 제시하고 있는 스피노자적 관점과도 구분된다. 아울러 느낌-정서와 인지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느낌-정서와 인지의 상호작용’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지만 무엇이 토대를 이루고 무엇이 우선되는가와 관련하여 ① ‘느낌-정서에 대한 인지의 우위론’, ② ‘느낌-정서와 인지 병행론’, ③ ‘인지에 대한 느낌-정서의 우위론’이 제시될 수 있다.⁴⁾ 내가 보기엔 ③의 입장이 올바른 유물론적 입장이다.

(3) 이정모 교수는 인지과학의 패러다임이 그간 ‘고전적 인지주의’에서 출발하여 ‘신경망적 접근의 연결주의’와 ‘인지신경과학’으로, 그리고 오늘날에는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내지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론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정모, 2010). 그리고 인지과학의 제4의 패러다임이 될 가능성이 있는 패러다임으로 ‘내러티브적 인지(narrative cognition)’ 접근을 들고 있다. 내가 보기에, “구체적인 몸을 가지고(embodied) 환경에 구현, 내재되어(embedded) ... 환경에 적응하는 유기체(organism)가 환경(environments)과의 순간 순간적 상호작용(interaction) 행위 역동(dynamics) 상에서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마음, 즉 유기체의 몸과, 문화, 역사, 사회의 맥락에 의해 구성되고 결정되는 그러한 역동적 활동으로서의 마음임을 강조하는 접근”(이정모, 2010, 13)으로 규정되는 바의 ‘체화된 인지론’ 내지 ‘체화된 마음론’이 오늘날 인지과학의 지배적 패러다임이 된 것은 무엇보다 인지과학이 마음과 뇌의 관계 및 마음이 (뇌를 포함한) 몸과 환경에 대해 지닌 관계에 관한 올바른 관점을 개발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어떤 관점이 올바른 ‘체화된 마음론’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하겠다. 그리고 ‘내러티브적 인지론’은 ‘체화된 인지론’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이 아니라 그것의 내용을 풍부히 하는 한에서 의미 있는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모 교수는 ‘체화된 인지론’을 ① “고전적 인지주의 관점을 기본 틀로 인정하고 단지 그 마음의 내용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표상의 원천(source)을 감각운동(sensory-motor)에 기반함, 즉 몸의 활동 정보에 근거함에서 찾으려는” ‘약한(온건한) 체화된 마음 입장’과, ② “고전적 인지주의의 틀로써는 실제로 일어나는 인간 활동의 역동적인 측면에 기초한 인간 마음의 본질을 ...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보며, 한 시점에서의 표상이 아니라, 이어지는 연속된 시점 상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궤적을 그리는 역동적 활동으로서의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강한(급진적) 체화된 마음’ 입장으로 구분하면서(이정모, 2010, 16) 앞으로의 심리학과 인지과학이 ‘약한(온건한) 체화된 인지’ 접근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정모, 2010, 19). 이 점은 인지과학이 본래부터 마음 현상 중에서 무엇보다 인지현상과 인지를 가능케 하는 형식적 틀의 구멍을 우선적 과제로 삼고 출발한 데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인지과정의 구멍을 중심과제로 삼는다고 할지라도 인지가 감각과 느낌-정서 등에 기초하여 성립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그 과정을 구명할 때에만, 그러므로 ①의 입장에서의 연구 역시 ②의 입장을 전제로 해서 이뤄져야 질 때에만 올바른 연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좁은 의미의 ‘인지과학’은 넓은 의미의 ‘마음에 관한 과학’의 한 부분이 됨으로써만 올바른 과학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3) 이런 입장은 ‘비환원적 물리주의’ 입장에 속한다고 하겠다. 비환원적 물리주의에 대해서는 이정모, 2008, 229~232 참조.

4) 이 문제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정서/인지선행 논쟁에 대해서는 이정모, 2008, 604~606 참조.

그러나 ‘체화된 인지’론의 입장에 선다고 할지라도 “뇌를 마음 작동에 간여하는 여러 요인들 중의 하나일 뿐이며, 인간의 행동의 사령탑 또는 지휘자가 아니라, 그저 수많은 동등하게 중요한 요인들(players) 중의 하나일 뿐이다.”(이정모, 2010, 15)라는 견해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기 보다는 - 권력의 측면에서 본 국가장치를 ‘사회의 계급적 힘 관계의 형태 특수화된 응축지점’으로 규정한 N. Poulantzas의 정의나, 힘 관계의 외연을 넓혀 국가장치를 ‘제 사회세력들의 힘 관계의 형태 특수화된 응축지점’으로 규정한 B. Jessop의 정의를 준용한다면 - 뇌란 ‘마음의 작동에 관여하는 제반 신체적 힘들의 형태 특수화된 응축지점’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뇌에 대한 이런 정의는 뇌를 인간 행동의 사령탑이나 지휘자로 보는 견해와도, 뇌를 단지 마음을 작동시키는 여러 단위들의 하나로 보는 견해와도 구분된다.

끝으로, 마음이란 “한 시점에서의 표상이 아니라, 이어지는 연속된 시점 상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궤적을 그리는” 역동적 체계(dynamic system)이므로(이정모, 2010, 16) “체화된 마음의 요체는 체화됨(embodiment) 보다는 상호작용성(interactivism)과 역동성(dynamicism)에 있다.”(이정모, 2010, 15) 라는 지적은 옳은 파악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체화됨이라는 것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행위가 출현할 수 있는 상황조건, 가능성 조성 기반”(이정모, 2010, 16)이라는 점에서 몸에 구현된 마음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음 활동의 역동적 과정에 대한 분석은 ‘이미 우리의 몸에 체화되어 있는 것’의 분석으로부터 출발해서 마음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분석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마음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이미 우리 몸에 체화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답해야 한다.

(4)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이자 사회문화적 존재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간(의 몸)이 지금 현재 놓여있는 환경에는 자연적-생태적 환경과 (인간이 만든 인공물과 인간의 관계도 포함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존재한다. 인간은 이런 환경에 규정당하고 적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노동과 사회적-정치적 활동을 통해 자연생태적 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경시킨다.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특정의 방향으로 인간을 행동하게 만드는 인간의 마음에 내용적으로 이미 체화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먼저 구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이미 체화되어 있는 것은 크게 보아 ① ‘선천적으로’ 이미 체화되어 있는 것과, ② ‘후천적으로’ 획득해 체화된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가 본성적인 것이라면, 후자는 예를 들어 과거 우리 사회에서 반복반공이데올로기가 국민들의 ‘체화된 무의식’ 수준의 집단적 마음현상이 된 것이나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주의’를 종교적 신앙 이상으로 체화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인류의 선조들이 직면했던 적응관련 문제와 그에 대한 심리적 해결책”(데이비드 M. 버스, 2005, 70)의 탐구를 중심과제로 삼는 ‘진화심리학’이 이룩한 성과를 비판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요구된다.⁵⁾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인지과학에서 이 문제가 아직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여기서 비판적 흡수가 요구된다는 점은 아래의 이유들 때문이다.

첫째, 가장 추상적인 이론적 수준에서는 진화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 및

5) 진화심리학과 관련된 외국의 연구업적들은 그간 한국에도 많이 번역되었다. 진화심리학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책으로서는 데이비드 M. 버스 (2005)를 들 수 있다. 그 외 Jerome H. Barkow et al.,(1992); 스티븐 핑커 (2004); 스티븐 핑커 (2007) 등을 참조할 것.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생존과 번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특정한 행동양식 및 심리적 메커니즘이 본성적인 것으로 되었다는 진화심리학자들의 주장이 사실은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다윈주의적 생물학의 기본명제에 배치되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엔, 인류의 선조들이 오랜 진화의 역사 속에서 환경에의 적응과정에서 획득한 특질들이 본성적인 것이 되었다는 진화심리학의 기본명제는 ‘환경에 의해 결정된 획득과 손실은 생식에 의해 새로 생겨나는 후대에 전달된다.’는, 즉 획득 형질의 유전을 주장한 라마르크(Lamarck)의 기본명제에 더 합치하는 것 같다. 그러나 진화심리학자들이 대부분 다윈주의를 수용하고 있는 점에서 이로부터 생겨나는 이론적 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는 생물학은 물론 진화심리학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이론적 난제라고 생각된다.

둘째, 진화심리학자들이 인간본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은 아직 가설 수준의 주장 이상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 과연 무엇을 인간본성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이론적 추론 및 그 추론에 대한 경험적 입증 등이 요구된다.

셋째, 자신의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어떤 본성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어떤 본성은 현대적 조건에 맞추어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자신의 이론적 전제를 무시하는 주장들을 제출하고 있는 경향이 다대하게 나타나고 있다.⁶⁾ 과학적으로 인정할만한 인간본성론에 입각하여 인간본성을 고려하는 좋은 정치질서 등을 합리적으로 추론해 내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성립되어 있는 특정의 정치질서를 합리화하기 위해 특정의 본성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이런 경향에서 벗어나는 것은 진화심리학이 과학다운 과학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넷째, 내가 보기에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론’ 등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시피 (리처드 도킨스, 2008), 주류 생물학과 주류 진화심리학이 유전자의 이기성을 이론 구성의 기본 출발 개념으로 삼으면서 경쟁과 질서 등만이 아니라 협동과 우애 등의 개념들을 추론해 내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유전자의 속성인 자기복제에의 충동 내지 욕망이란 그 자체만으로는 이기적인 것도, 이타적인 것도 아니다.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등은 유전자들 간의 ‘관계’를 문제 삼을 때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일 뿐이다. 그런 충동을 지닌 유전자들의 관계에서 유전자들은 서로 이기적이거나 이타적으로 또는 이기적이자 이타적으로 처신하며, 경쟁의 관계나 협동의 관계를 또는 경쟁적 협동 내지 협동적 경쟁관계를 맺게 된다. 이런 관계들 중 진화적으로 어떤 관계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가는 보다 구체적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부분의 진화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모든 행동이 본성적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본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획득한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

6) 대표적인 예로 Paul H. Ruben (2002)을 들 수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진화심리학의 인간본성론을 자기나름으로 해석하면서 ‘자본주의적인 이기적 경쟁사회’를 일방적으로 옹호한다. 그러나 집단적 삶의 문제와 관련시켜 진화심리학이 발전시킨 ‘호혜적 이타주의론’(데이비드 M. 버스, 2005, 371~376; R. L. Trivers, 1971; W. D. Hamilton, 1964 참조)은 이타주의적 원리만을 내세우는 사회는 물론 그런 이기적 경쟁사회를 옹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론’ 등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시피 (리처드 도킨스, 2008) 주류 생물학과 주류 진화심리학이 유전자의 이기성을 기본 개념으로 삼으면서 경쟁, 질서만이 아니라 협동, 우애 등의 개념들을 추론해 내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유전자의 속성인 자기복제에의 충동 내지 욕망이란 그 자체만으로는 이기적인 것도, 이타적인 것도 아니다.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등은 유전자들 간의 ‘관계’를 문제 삼을 때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일 뿐이다. 그런 충동을 지닌 유전자들의 관계에서 유전자들은 서로 이기적이거나 이타적으로 또는 이기적이자 이타적으로 처신하며, 경쟁의 관계나 협동의 관계를 또는 경쟁적 협동 내지 협동적 경쟁관계를 맺게 된다고 하겠다. 이런 관계들 중 진화적으로 어떤 관계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가는 보다 구체적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고 주장하면서도 본성적인 것의 중요성을 과도하게 내세우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성적인 것이 마음의 작동 및 행위의 기반을 이루며 큰 범위에서 후천적인 것이 나타날 수 있는 외연을 결정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게다가 본성적인 것들과 후천적인 것들이 마음속에서 상호침투와 상호반영의 관계를 맺는 가운데 서로 뿔 레야 뿔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본성적인 것들과 후천적인 것들의 복잡한 ‘증충결정(overdetermination)’을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의 작동 범위가 그 잠재적 측면에서는 무한하고, 자신에 처한 환경에 따라 인간의 행위가 실로 다양하고 풍부한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는 사실에 비춰볼 때,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인간의 구체적 행위와 관련해서는 인간 마음의 보편적인 특성들 보다는 후천적으로 획득한 특성들이 인간의 실제적 행위를 규정하는 보다 결정적인 측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생물학의 발전을 통해 인문·사회과학을 모두 생물학 내지 사회생물학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에드워드 윌슨(Edward O. Wilson)의 견해⁷⁾는 생물학 연구의 주류적 방법인 환원주의적 연구방법을 생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관계에도 적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인문·사회과학을 궁극적으로 생물학으로 환원가능하다고 보는 생물학적 환원주의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독자성을 지닌 학문으로서의 생물학의 가능성 자체도 부인하는 견해이기도 하다. 인문·사회과학이 생물학으로 환원될 수 있다면, 생물학 역시 결국 화학·물리학으로 환원 가능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인간 역시 크게 보아 동물과 생명체에 속한다는 점에서 인간이 다른 동물 전체와 다른 생명체 전체와는 무관한 존재로 보는 견해 역시 잘못이다. 이와 관련, 생물학적 현상으로 환원 불가능한 인간의 사회문화적 현상 역시 생물학적 존재인 인간들의 상호작용 등이 만들어 낸 새로운 ‘떠오름’ 현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본성적인 것 역시 불변의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변하기 어렵긴 하지만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영구불변의 인간본성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본성적인 것과 사회문화적인 것 역시 ‘공진화’의 관계에 있음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⁸⁾

2. 인지정치학의 가능성과 과제

(1)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몸에 구현된 마음의 인지과정을 ‘체화된 인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면, 그 연구는 당연히 본성적으로 규정되는 마음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상황 지워지며 행위로 구성되는 마음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몸에 체화되는 사회문화적 측면들은 본성적인 측면들보다 (비록 양자가 복잡한 증충결정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실제적인 작동에 보다 규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크게는 인지 인문·사회과학 내지 역사적 인지 인문·사회과학 (및 그것의 한 분야로서의 인지정치학)이 사실은 인지과학의 단순한 한 연구 분야가 아니라 인지과학의 중심적인 연구 분야의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가리킨다. 인지과학은 심리학과 더불어 (지리학과는 다른

7) 에드워드 O. 윌슨 (2005) 참조. 그런데 이 책에서의 윌슨의 주장 내용에는 그런 환원론에 일정하게 유보를 취하는 비일관된 모순적 측면들이 보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8) 이 점을 메트 리들리는 유전자의 관점에서 ‘양육을 통한 본성(Nature via Nurture)’으로 정리하고 있다. 메트 리들리, 2004, 참조

기준에서)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접점에 서있는 학문이다. 그러나 모든 학문분야가 많은 적든, 그리고 명시적이든 비명시적이든 인간의 의식 활동이나 인지 활동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인지과학은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접점에서 한편으로는 자연과학과 공학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인문·사회과학과 제반 응용학문으로 계속 뻗어나가고 있다. 인지과학의 외연이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오히려 그 외연을 일정한 수준에서 끊는 것이 더 필요할 날이 올지 모른다. 그러나 그 외연을 어디까지로 정하든 인지 인문·사회과학의 정립 없이는 인지과학은 절름발이 학문의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다.

(2) 인간의 마음에 이미 체화되는 후천적인 것은 체화된 마음에 각인된 자연적-생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을 가리킨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노동생산물과 자연과 맺는 관계는 인간과 인간이 맺는 사회문화적 관계에 결정적으로 규정 당한다. 이 점에서 인간과 인간들의 관계로서의 사회문화적 관계가 지닌 구조적 특성과 원리, 이념 등이 인간의 인지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란 지대하다. 이와 관련, 이런 구조적 특성과 원리, 이념 등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에 각인되는지는 인문·사회과학의 일차적 연구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인간과 인간의 자연생태적 환경의 관계 역시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다. 이 문제는 별도의 고찰이 요구된다. 다만, 인간과 자연생태적 환경의 합리적 관계 설정은 인간과 인간간의 합리적 관계 설정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인지과정에 미치는 인간들의 사회문화적 관계의 영향 문제를 그간 사회과학에서는 대체로 인간의 ‘사회화’(socialization) 과정의 문제로 접근해 왔다. 그렇다면 인지 인문·사회과학의 일차적 연구대상은 인간의 사회화과정이고, ‘정치사회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인지정치학의 일차적 연구대상이 된다고 하겠다(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2002, 90~100).⁹⁾ 정치심리학의 과제도 크게 보면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사회화 과정에 대한 기존의 주류적 연구들은 주로 아동기, 청년기, 성년기로 나뉘지는 사회화의 단계와 가정, 학교, 친구집단, 직장, 매스 미디어 과 같은 사회화 기구(socializing agents)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다보니 사회화의 내용이 되는 사회문화적 관계의 구조적-제도적 특성과 관련을 지닌 일상적 환경의 특수한 문화적-상징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개인들의 마음에 각인되는가를 등한시하는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상적 환경의 특수한 문화적-상징적인 내용들의 전유를 통해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개인적 실천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형’을 추출해낼 수 있는 ‘개인적인 사회화과정’이 무엇인가(I. Doelling, 1986)가 질문으로 떠오른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심리학과 문화연구의 결합, 주류 심리학에 대한 유물론적 독해 및 인간의 마음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변증법적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대상에 대한 인간 활동이 맺는 관계의 두 측면인 ① 인간활동이 의식에 독립적인 물질적 존재와 맺는 관계와, ② 그 결과가 심리적 활동으로 나타나는 대상의 모사(模寫)에 대한 인간활동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인간의 의식에는 모상들이 의미체계를 형성한다는 점, 모든 개인들은 자신의 사회화과정에서 자신이 전유해야 하는, 이미 확립된, 역사적으로 형성된 의미체계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현상들에 대한 의식은 외부로부터 전유되어야 하는 ‘확립된’ 의미들을 매개로 해서 생성된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은 카시르(Cassir)가 말한, 의미들과 상징들의(문화)세계가 지닌 객관성과 인지 및 인지의 행위 규정적 기능을 유물론적으로 정초지을

9)한국사회에서의 정치사회화 과정에 관한 대표적인 경험적 연구로서는 이순영(1994) 등 참조.

수 있게 한다.

그런데 개인들의 의식 속에서 의미들은 단순히 사회적 의식의 내용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일회적인 경력 속에서 형성된 ‘개성적 감성’에 상응하도록 ‘채색되고’, 배치-평가된다. 때문에 자신의 생활계획에 대한 모순적인 행동 동기들의 통합은 그런 통합 없이는 행위능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개인적 재생산의 필연적인 조건을 이룬다. 그러나 개성적 감성이란 동시에 초개인적이고 사회적 존재성을 지닌다는 점, 그리고 개인들의 기질은 단지 사회적으로 현존하는 ‘감성-제공’을 가공하는 것을 통해서만 형성된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일상적 생활세계 속에서 형성되는 개성적 감성의 상징적 존재와 그것의 작용 방식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개인적-사회적 재생산의 필연성들에 특수하게 작용하는 문화적인 매개양식을 밝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L. Séve는 개인들의 내적 행위논리가 특수한 역사적-사회적 유형들을 통해 주형되는 객관적인 문화구조 연구를 통해 ‘역사적 개인성 형태들’ 개념을 도출하고 있다(L. Séve, 1986). 이 개념을 통해 그는 개별적인 개인들에게서 안정적인 개성의 내적 발전논리라는 의미에서 개성과 개인의 경력을 구성해 내는 심리적 관계들을 ‘유발하는’, 사회적 관계의 객관적인, 즉 비심리적인 배치와 구조들 - 예를 들면 ‘핵가족제’, ‘의무교육시간’, ‘경력쌓기’ 등 -에 대해 언급한다. 이러한 그의 연구는 개인들의 주체적 성격과 사회적 관계의 결정기능이 물질적-관념적 활동유형들과 함께 어떻게 매개되는가를 밝히는 데에 기여한다.

(3) 마음이 지닌 본성적 측면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인 반면, 마음에 각인된 사회문화적 특질이라 할 수 있는, 후천적으로 체득한 것은 인간들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마음에 각인된 것이다. 이 점에서 마음이 지닌 본성적인 측면은 ‘마음의 전(前)자아적 특질’로, 몸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관계에서 마음에 각인된 사회문화적 측면은 ‘마음의 초(超)자아적 특질’로 부를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마음의 전자아적 특질들이 감성적이고, 전(前)의식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마음의 초자아적인 특질들은 ‘무의식의 차원’만이 아니라 무의식에 기반을 두고 충돌하는 가운데 (마르틴 후베르트, 2007, 89~143) 체화되는 ‘의식의 차원’ 역시 포함한다. 이와 관련, 나는 인간들에게 체화된 마음이란 궁극적으로 모든 개인이나 특정의 인간군들이 공유하는 측면들을 지니면서도 유전적 특질과 개인이 처한 환경의 차이 등으로 인해 개인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이를 통해 모든 개인들을 동시에 개성적 존재로 만드는 ‘(감성적이고 전의식적인) 전자아적 특질들과 (무의식적이자 의식적인) 초자아적 특질들의 총체’로 규정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두 수준의 특질들은 후자가 구체적 현실 속에서의 인간의 실제적인 행위에 대해 규정적 역할을 행하는 가운데 복잡한 증충결정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은 개인이 현실 속에서는 초자아적 특질들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정당하면서도 전자아적 특질들과 초자아적 특질들의 복잡한 증충결정을 통해 마음의 구조와 행위에 변형이 생긴다는 것을 가리킨다. 인간의 체화된 마음과 행위에 대한 이런 규정은 마음과 행위를 단지 본성적인 것으로 환원시키는 입장과도, 본성우위론이나 후천적인 것의 단순 우위론과도 구분된다. 이런 관점은 현실의 인간을 기본적으로 ‘사회문화적 관계의 총체’이면서도 본성적인 것과의 증충결정을 통해 다양하게 변형되는 존재’로 보는 관점이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 사회문화적 관계들을 변화시키며, 이를 통해 자신을 또한 변화시킨다. 이 점에서 어떤 고정된 인간성을 지닌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에 대한 이런 규정은 동시에 인간이 전의식적이고 감정적인 ‘본성적’ 충동들을 이성적

으로 통제하는 만큼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존재”, “자신의 자연적인 조건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될 수 있다는 ‘전통적 인간상’((마르틴 후베르트, 2007, 19~20)도 부정하는 견해이다. 이와 관련해, 알튀세르(L. Althusser)가 ‘개인들의 주체로의 호명’을 그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본 이데올로기를 일종의 ‘의식 이전의 무의식’ 내지 ‘인지적 무의식’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그리고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말한 아비투스 개념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개인의 일정하게 구조화된 무의식적인 성향체계를 가리키는 것이라 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다.

(4) 사회화의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계급, 계층 및 집단적 차원에서도 구명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집단적 인지의 형성 등의 문제와 관련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노동자 계급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관심은 노동자의 일상문화와 조직-제도들 및 이들의 예술적, 문화정치적 활동 등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 문화에 대한 주류적 견해는 그것을 서구민주주의체제의 다원적인 대중문화의 한 부분으로 간주한다. 이와는 달리 E. P. Thompson이나 R. Hoggart 등은 노동자계급의 일상문화를 노동자계급형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E. P. Thompson, 1963; R. Hoggart, 1957) 그리고 영국의 CCCS(Center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는 지배문화와 구분되는 ‘하위문화(subculture)’로서의 노동자문화를 연구하고 있다. 이들은 하위문화로서의 노동자문화가 구조화된 경험에 대한 상상적인 문제해결의 반응일 뿐 만아나라 대중매체 등에 뿌리를 둔 모(母)문화 간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되며, 저항적이면서 동시에 억압적인 문화요소들(여성억압, 반지성주의 등)을 지니고 있고, 소비이데올로기와 소위 노동윤리와 같은 전통적인 생산이데올로기라는 모순적인 요소들이 착종된 것으로 파악한다. 이와 관련해 Dick Hebdige는 하위문화를 보다 광범위한 문화 내에 위치하면서 사회역사적인 구조 내에서 특정한 사회집단이 직면한 특정한 입장과 특수한 갈등에 부합하는 타협적인 문화형태로서 모문화와의 갈등을 표현하고 해결하는 형태라고 규정한다(Dick Hebdige, 1979). 즉, 그것은 지배문화와의 일정한 타협의 결과로서 지배와 저항이 대립, 경합하는 투쟁의 영역에서 저항적 형태만이 아니라 순응, 승인, 통합의 제요소들이 착종하는 형태이며, 지배문화의 ‘지배매커니즘’과 하위집단의 ‘저항매커니즘’이 모순적으로 뒤섞여 있는 두 메커니즘의 타협적 형태이다. 그런데 노동자문화에 대한 이런 정의는 노동자들이란 지배적인 규율 등에 완전히 종속된 규율화된 푸코적인 개인로도, 그리고 분명한 저항적 주체만으로도 출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노동자문화에 대한 이런 연구들은 노동운동의 전망에서 문화와 정치와의 관련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 정치적 실천을 통한 자신의 문화의 쇄신 및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주체성 확립과 인격적 발전을 위한 운동의 새로운 형태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이와 관련해 노동자투쟁의 목표로서 ‘자기목적으로서의 개인적 발전’ (Seve, Haug, Metscher, Bertrand, Maase 등), 노동운동조직의 민주화,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자립성을 지닌 저항문화의 형성-발전의 과제 등이 제출되고 있다.

(5) 초자아적 관계의 형성에 미치는 정치의 역할을 무엇일까? 우선 정치는 넓게는 ‘인간들 간에 성립하는 권력관계를 유지시키거나 변화시키려는 인간들의 사회적 실천’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사회적 관계에는 이미 권력관계가 내포되어 있다. 때문에 권력관계는 사회 속에 편재하며, 정치 역시 인간의 모든 사회적 실천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측면에

속한다. 그런데 권력관계의 변화는 권력관계를 포함하는 다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유발하며, 역으로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 많은 적든 그 사회적 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권력관계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와 관련해, 정치는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권력관계를 유지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 다른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키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인간들의 사회적 실천으로 규정내릴 수 있다. 그런데 정치는 정치적 지배장치로서 ‘제 사회세력들의 힘관계의 응축’으로 볼 수 있는 국가적 권력관계의 유지와 변화를 둘러싼 제 사회세력들의 갈등과 타협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국가적 정치는 한편으로는 법과 강제력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권력관계에 의해 뒷받침 받으면서 사회문화적 관계 전반의 변화 및 ‘초자아적 관계의 체화된 마음으로서의 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인지 인문·사회과학에서 인지정치학의 차지해야 하는 위치는 매우 특별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인지정치학은 한편으로는 다른 인지 인문·사회과학 분야들과 구분되는 독자적 연구분야를 개척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간의 인지과학 연구의 성과는 물론 모든 인문·사회과학의 성과를 인지정치학의 관점에서 종합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인지정치학은 개인적-집단적 인지과정과 권력의 관계를 구명한다는 관점에서 사회의 제반 구조적 메커니즘들의 원리와 문화적-이데올로기적 지형, 국가와 제반 사회기구, 정치세력과 사회집단, 가정 등이 개인적-집단적 인지과정에 미치는 영향, 대중의 정치심리학적 성향, 대중의 우중화와 지성화의 조건들, 계급적, 지역적, 성적 정체성 등 제반 집단적 정체성의 형성 메커니즘, 개인들의 정치적 행위의 동기 등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포스트뉴턴적·해석학적 비판과학’으로서의 인지과학과 인지정치학을 위하여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지과학은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접점에서 한편으로는 자연과학과 공학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인문·사회과학과 제반 응용학문으로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학문이다. 이처럼 인지과학의 외연이 넓고 또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지과학은 자연과학과 공학, 과학·기술과 생물학, 생물학과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융·복합과 융·복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의 실험장이기도 하다. 인지과학은 무엇보다 오늘날 학문세계가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C. P. 스노우가 말한 이른바 ‘두 문화 two cultures’(C. P. 스노우, 2001)이른바 ‘두 문화(two cultures)’ 극복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학문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두 문화의 극복의 문제와 관련하여, 나는 최근에 발표한 글에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서 ① ‘고정불변의 시공간체계를 가정하는 가운데 그런 시공간체계 내에서 나타나는 구조와 법칙 등을 탐구하는 ‘뉴턴적 과학’을, 그런 시공간체계 자체를 상대화하는 ‘포스 터뉴턴적 과학’으로 전화시킬 필요성과 더불어, ② 과학을 ‘관찰’과 ‘예측’이 아니라, 사실 인식에 기초한 ‘해석’과 ‘비판’을 자신의 과제로 삼는, 몰가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실증주의적·경험주의적 과학과는 구분되는 ‘해석학적 비판과학’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내가 보기에, 인지과학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된 ‘체화된 인지론’은 인지과학을 포스 터뉴턴적 과학으로 만드는 방법론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인지과학을 해석학적 비판과학으로 정립하는 것이 오늘날 인지과학이 성취해내야 할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해석’이란 인간의 주관적 체험 등을 해석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

에서 인식된 사실이 왜 성립하는가 등을 단지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그것이 인간사회와 자연생태계 (및 인간과 인공물·과학기술)의 합리적인 관계 설정, 인간사회의 합리적 구성 및 최종적으로는 인간 개개인 모두의 행복한 사회적·개인적 삶의 향유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 인간의 ‘삶’에 대해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가를 파악하는 관점에서 그 사실을 해석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비판’이란 그런 해석에 기초하여 성립되어 있는 질서 등을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그런 비판적 파악에 기초하여 사회 변혁 등에 기여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는 것을 가리킨다(김세균, 2009).

인지과학을 해석학적 비판과학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은 무엇보다 인지과학의 발전에 의해 뒷받침 받고 있는 ‘인지공학’의 눈부신 발전 등이 인류사회에 이미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그 영향이 앞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로 막중한 것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나아가 인지과학과 인지공학의 성과가 단지 부가가치의 창출과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그것이 인류사회에 미칠 부정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절박하다. 이와 관련, 우리는 인지과학이 학문 간의 융·복합을 촉진시키고 있는 현상 만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융·복합을 추동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직접적인 동기를 넘어서는 사회의 정치경제적 힘과, 연구의 성과가 인간들의 권력관계와 사회경제적 관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증대하는 인류 및 인공지능체의 지적 능력의 증대과정이 가져오는 실재적 모순들을 분석하고, 그 분석의 의미를 옳게 해석하는 선상에서 융·복합이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때문에, 인지과학은 인류 및 인공지능체의 ‘지적’ 능력이나 ‘수행’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서 더 나아가 무엇보다 인류 전체를 풍부한 감성적 능력에 뒷받침 받는 ‘지성적’ 사유능력을 지닌 존재로 상승시키는 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그리고 날로 증대하는 인류 및 인공지능체의 지적 능력이 어떻게 오늘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의 해결에 기여하고, 그런 지적 능력들을 대중의 ‘민주적 집단지성’의 능력으로 만드는 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에 직면하여 해석학적 비판과학으로서의 인지정치학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막중하다. 인지정치학은 인지과학이 지닌 정치성에 대한 질문이자, 그 정치성이 민주적 감성과 지성의 함양을 위한 것이 되도록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지적 탐구가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호정 (2009): “환원론을 극복하려는 생물학,” 최재천, 주일우 엮음, 『지식의 통섭』, 이음
- 김세균 (2009): “사회과학과 통합학문: ‘해석학적 비판과학’으로의 학문 통합을 위하여,” 『자연과학』 제26호
- 데이비트 M. 버스 (2005): 『마음의 기원: 진화심리학』, 김교현 등 옮김, 나노미디어
- 리처드 도킨스 (2008): 『이기적 유전자』 (30주년 기념판 제10쇄), 홍영남 옮김, 을유문화사
- 마르틴 후베르트 (2007): 『의식의 재발견: 현대 뇌과학과 철학의 대화』, 원석영 역, 프로네시스
- 메트 리들리 (2004): 『본성과 양육』, 김한영 역, 감영사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2002): 『정치학의 이해』, 박영사
- C. P. 스노우 (2001): 『두 문화』, 오영환 역, 사이언스 북스
- 스티븐 핑커 (2004): 『빈 서판』, 김한영 옮김, 사이언스 북스
- (2007):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과학이 발견한 인간 마음의 작동원리와 진화심리학』, 김한영 옮김, 도서출판 소소
- 안토니오 다마지오 (2007): 『스피노자의 뇌: 기쁨, 슬픔, 느낌의 뇌과학』, 임지원 옮김, 사이언스 북스
- 에드워드 윌슨 (2005): 『통섭: 지식의 대통합』, 최재천. 장대익 옮김, 사이언스 북스
- 이순영 (1994): 『정치사회화 - 사회인지와 현실참여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정모 (2008): 『인지과학: 학문 간 융합의 원리와 응용』,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정모 (2010), “인지과학 패러다임의 새 변화가 학문간 융합에 주는 시사,” 김광수 편 『융합 인지과학의 프런티어』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초벌본
- Barkow, Jerome H. et. al.,(1992): *The Adapted Mind: Evolutionary Psychology and the Generation of Culture*, New York / Oxford: Oxford Univ. Press
- Doelling, I., (1986): *Individuum und Kultur*, Berlin
- Easton, David (1957): "An Approach to the Analysis of Political Systems," *World Politics*, vol. 9. no.3 (April 1957);
- (1965):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Wiley
- Hamilton, W. D. (1964): "The Genetical Evolution of Social Behavior. I and II,"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7
- Hebdige, Dick (1979): *Subculture: The Meaning of style*
- Hoggart, R. (1957): *The Uses of Literacy. Aspects of Working Class Life*, London
- Ruben, Paul H.(2002): *Darwinian Politics: The Evolutionary Origin of freedom*, New Brunswick, New Jersey, and London: Rutgers Univ. Press
- Séve, L. (1986): *Marxismus und Theoire der Persoenlichkeit*
- Thompson, E. P. (1963):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London
- Trivers, R. L. (1971): "The Evolution of Reciprocal Altruism," *Quarterly Review of Biology*, 46